

자연과 책이 행복하게 만나는 곳

근대 서적 전문박물관인 '영월 책박물관' 개관



'영월 책박물관'에 마련된 도서판매소 어린이·예술도서 등을 전시·판매한다.

영월 책박물관은 국내에서 처음 설립되는 근대 서적 전문박물관. 근대 이후 발간된 책의 역사를 정리하고 올바른 책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세워진 시설 박물관이기도 하다. 영월 책박물관은 궁극적으로 '한국판 헤이온와이'를 꿈꾼다. '지적 여가문화'를 창출하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가꿔갈 예정이다.



동서점, 책 전문 카페와 갤러리, 그밖에 호텔·식당 등 위락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적 여가문화'를 창출하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가꿀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

영국의 헤이온와이, 벨기에의 레뒤, 프랑스의 몽틀리와..... 세계적인 책마을 공동체의 이름들이다. 국내에도 강원도 영월에 최초로 책마을의 주춧돌이 놓이게 됐다. 지난 3일 개관한 '영월 책박물관' (관장 박대현)이 그것. 풀과 흙냄새 가득한 자연생태와 인간정신의 정화인 책문화를 접목시킨 책마을의 유토피아가 그 소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강원도 영월군 서면 광전리 골말마을. 청량리역에서 중앙선 열차를 타고 3시간 남짓 이지랑이 오르는 논밭을 곁에 두고 달리면 영월역에 도착한다. 군내버스를 갈아타고 20분을 더 가면 골말. 아래에 피라미드의 은빛 지느러미가 보이는 쌍다리를 건너면 바로 영월책박물관이 자리잡은 신천초등학교 여촌분교다. 교사 2동(교실 5개)과 관사, 숙직실 등의 건물이 아이들의 손때와 함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책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영월 책박물관은 국내에서 처음 설립되는 근대 서적 전문박물관. 근대 이후 발간된 책의 역사를 정리하고 올바른 책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세워진 시설 박물관이기도 하다. 서울 광화문에서 고서점 '호산방'을 운영해 온 박대현 관장의 책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결실을 맺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11월~2월은 오후 5시)까지 개관한다. 입장료는 초·중·고등학생 1000

원(20인 이상 단체 500원), 중·고등학생 1500원(1000원), 대학생·일반 2000원(1500원), 유치원생·노인·장애인 무료다(0373-372-1713~4).

개관일에 맞춰 '아름다운 책'과 '어린이 책'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기획했다. 제1전시실의 '아름다운 책' 전시는 한국의 근대 도서 가운데 책 자체의 미학을 구현한 100권을 모았다. 장정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책들로 전시돼 한국 근대도서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귀족도》(서정주 지음, 김영주 장정, 선문사, 1948), 《청록집》(박목월 외 지음, 김용준 장정, 을유문화사, 1946), 《왕부의 낙조》(김동인 지음, 이승만 장정, 매일신보사, 1941) 등 문학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명 희귀본도 포함돼 있다.

제2전시실에 마련된 '어린이 책'은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정리했다. 조선시대 목판본인 《동몽선습》, 윤석중 동요집 《초생달》(박문출판사, 1946) 등을 비롯, 교과서·동화·동시집·만화·잡지·음반 등 1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일본의 식민화 교육, 우리 말과 글을 되찾은 이후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편찬된 교과서 등을 통해 어린이 교육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영월 책박물관은 궁극적으로 '한국판 헤이온와이'를 꿈꾼다. 전시와 학술행사 등 책

을 주제로 한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뿌리내리면 각종 전문서점과 고서점(예술·아

책마을 공동체의 꿈 일구는 박대현 관장

영월책박물관의 박대현 관장(46)은 책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꿈을 이룬 사람이다. 지난 20여년간 서울 광화문에서 고서점 '호산방'을 운영하며 책과 인연을 맺었다. 한적·양장본·비도서 자료, 예술 및 아동도서 신간 등 약 8천권 속에 파묻혀 살면서 낯다른 꿈을 꾸어왔



박대현 관장.

다. 바로 '책마을 건설'이 그것이다. 이에 앞서 96년에는 1655년부터 1949년까지 서양에서 출간된 한반도 관련 단행본 2백67권을 소개한 1천쪽 분량의 《서양인이 본 조선-조선관계 서양서지》(전2권)를 펴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꿈꾸어왔던 '책마을 건설'을 위해 오로지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 책마을이 터 잡을 부지물색을 위해 구두에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전국을 쏘다녔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입이 아프도록 자신의 꿈을 설득시켜야 했다. 마침내 그는 박물관을 개관함으로써 원대한 꿈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영월의 골말로

삶의 터전까지 옮겼다. 물론 호산방도 함께였다. 지난해 9월부터 박물관 공사 과정을 거의 혼자서 도맡아 해왔다.

박물관을 개관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남은 일이 산더미 같다. 박물관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일차 목표. 한국 근대 책의 역사를 정리한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점가들—한국 근대 도서장정의 소사》도 개관에 즈음해 펴낸다. 앞으로 고서점·예술서점·아동서점, 카페, 문화관련 세미나 등을 유치하고 도록 등의 출판과 캐릭터(엽서·노트·연필·가방·티셔츠 등) 개발도 구상중이다. (박천홍)